세상일 전문가와 성도의 자존심

(고린도전서 6:1~11)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일 전문가와 성도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일 전문가와 성도의 자존심”

사도 바울은 7~8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단호하고 강렬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처럼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말씀은 달리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보다 세상일 전문가를 더 먼저 찾는 일은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는 비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굴함이 앞에서 나왔던 모든 악행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부패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11절을 보면 “불의한 자

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는 색을 탐한다는 뜻이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악행들은 앞서 나왔던 것들인데 음행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악행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됨을 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분파가 생겨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악행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버지의 처를 취하는 음행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파로 인해 일반인이 되어버린 고린도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될 것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처를 취한 사람의 음행에 대해 쫓아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성도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처를 취함과 동성연애나 우상숭배나 탐욕을 부리는 일과 똑같이 구원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악행들과 성도 간에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에는 차이점

이 있습니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속여 빼앗는 것과 같은 일들은 마음에 세상 것을 담고 방치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마음 안으로 세상것이 들어와 부패한 상태가 발효되어서 인격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마음에 담은 채로 방치한 잘못이기에 땅 쪽을 향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도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하늘 쪽을 향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연결이 끊긴 상태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은 너무나 강렬하게 성도의 자존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일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문제를 판단하는 대표로 판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도 있을 것이고 삶의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면 보통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일의 전문가들 앞에서 성도가 자존심을 버리고 비굴해지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란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세상일에 대한 판단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조물주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불의하다 말합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시고 앞서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판단의 전문가임을 주장함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허락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아는 분은 세상의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문제 또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들어감으로써 살아계신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로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이유는 덜 믿거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판사님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 전체를 성도가 판단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재판관들끼리 다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재판관이 일반인들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장 12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저도 없고 거침도 없고 염려도 없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곧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일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판단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 성도가 판단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의 생을 올바르게 살았음을 깨달을 것이고 모든 일반인들은 생을 그릇되게 살았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일반인 모두에게 동시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성도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모습이 죄악 된 것임으로 판결이 내려지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삶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기준으로 제시되는 대표적 예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 결국은 나사로가 올바

르게 살았음이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부자는 판단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기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나사로는 고난만 받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기쁨거리로 삼았던 것들이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 기쁨거리가 없이 이름이 뜻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거리로 붙잡았던 생을 살았습니다. 한편 부자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세상에서 많은 기쁨거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더니 이제는 거지 나사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거지였던 나사로가 올바로 살았음이 밝혀집니다. 나사로의 삶을 기준으로 부자에게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16장 25절 말씀을 풀어보자면 “부자야, 나사로에게는 네가 생각하는 기쁨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만을 기쁨거리로 삼고 살았다. 그 나사로의 삶이 진리이다. 너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온갖 기쁨거리로 살았다. 그러므로 너의 삶은 죄악으로 뭉쳐진 삶이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감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나사로가 부자에게 가서 세상 문제를 판단해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도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세상일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것은 진리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 자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을 버리는 것이고 성도 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살아계신 조물주와 연결된 자들이 삶의 문제를 세상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곧 조물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상태를 포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처를 취하는 음행이나 우상숭배 하는 자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소송에 관한 조언을 하다가 9~11절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악행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의 영적인 성격이 악행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일까요? 주석을 보면 타락한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는 식으로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언급된 의롭게 여기심과 불의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입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의롭게 여기심보다 성도를 의롭게 여기심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관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기라도 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 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의로움이 성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도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인간과 다른 점은 처음부터 천국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성도와 비교하자면 의롭게 여기심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보면서 섬기듯이 성도는 육체에 갇혀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를 마음에 들어 하심은 천사를 마음에 들어 하심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를 기준으로 천사의 의로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있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듯이 섬깁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섬깁니다. 누가 더 의로움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천사보다 우리가 더 큰 의로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대답이 6절에 언급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세상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재판을 경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존재감 자체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십니다. 산헤드린공회나 빌라도는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이들을 재판관으로 마주하고 계셨을 뿐이지 이들의 판단을 따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는 산헤드린공회원들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무겁고 두려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뒤로는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감을 중히 느끼면서 산헤드린공회의 존재감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최정상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과 같은 이들도 경히 여기셨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각 영역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전문가들을 경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물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그를 지으신 조물주의 전문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전문가들은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성도는 그 문제의 있음보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이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소원하기보다는 문제의 있음을 느끼고 문제의 해결을 소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방치할 때에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악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문제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욕구가 작용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게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풍랑이 평정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뜻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을 문제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편으로 전문가를 찾아가게 하셨다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때는 전문가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끄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도의 자존심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물주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쁨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문제에 장악됩니다. 문제에 장악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세상 전문가를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히는 일입니다. 이는 곧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인생 전체를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를 취하는 악행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될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결을 구걸하는 것은 성도의 자존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전문가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면 성도의 자존심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고 전문가를 붙잡은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전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결과가 됩니다.

전문가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삶은 은혜롭고 복됩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밭길로 만듭니다. 성도는 그런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궁극적인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보물 되심을 먼저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복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떠올리는 습관은 예의주시하며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병원에 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습관적인 체질을 예의주시해서 무의식적으로 끌려감을 막아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두려워하고 쫓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물주로 살아계십니다. 전문가는 언젠가 죽을지라도 여러분의 조물주 아버지는 죽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전문가에게 보이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전문가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존심을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면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인생까지도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관계하되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보물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문제에 장악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평정심을 찾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로소 전문가도 올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오직 성도의 자존심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